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제108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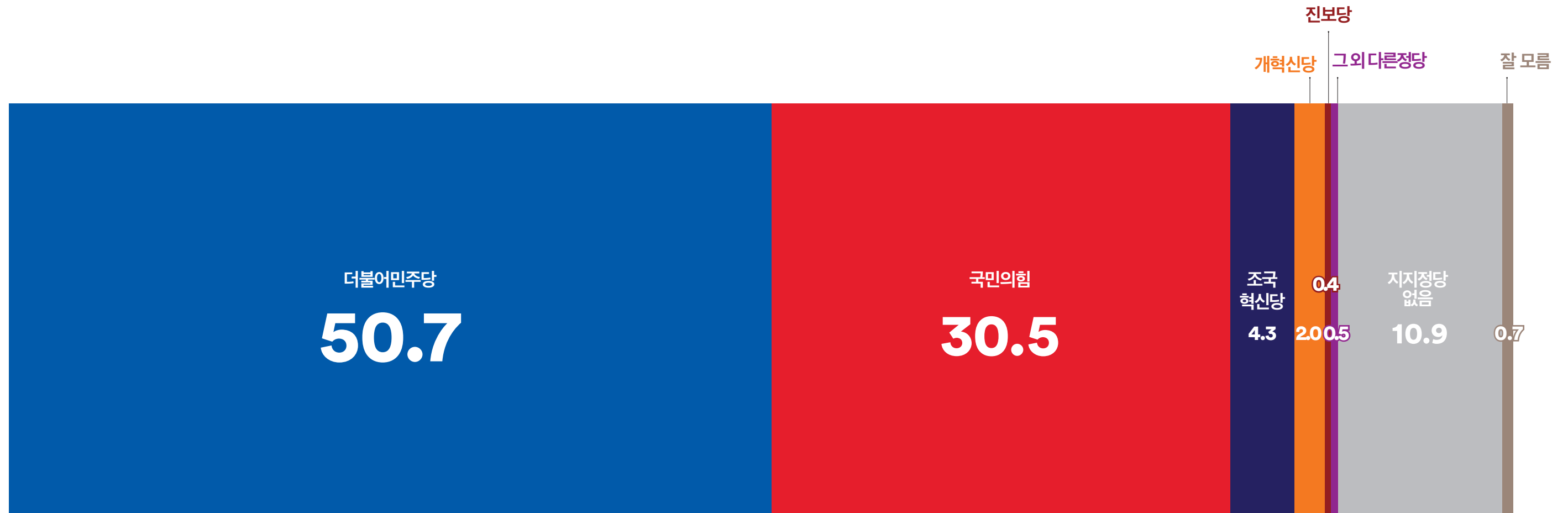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0	50.0	495	49.5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1	50.0	506	50.5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4	15.4	153	15.3					0.99
응답률	13.8% [총 통화시도 7,242명]			30대	151	15.1	149	14.9					0.99
조사기간	2025년 3월 28일 ~ 3월 29일(2일간)			40대	175	17.5	174	17.4					0.99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9	19.9	197	19.7					0.99
				60대	175	17.5	178	17.8					1.02
				70세 이상	147	14.7	150	15.0					1.02
			지역	서울	188	18.8	187	18.7					0.99
				인천·경기	325	32.5	323	32.3					0.99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9	10.9					1.03
				광주·전라	97	9.7	96	9.6					0.99
				대구·경북	98	9.8	98	9.8					1.00
				부산·울산·경남	146	14.6	147	14.7					1.01
				강원·제주	41	4.1	41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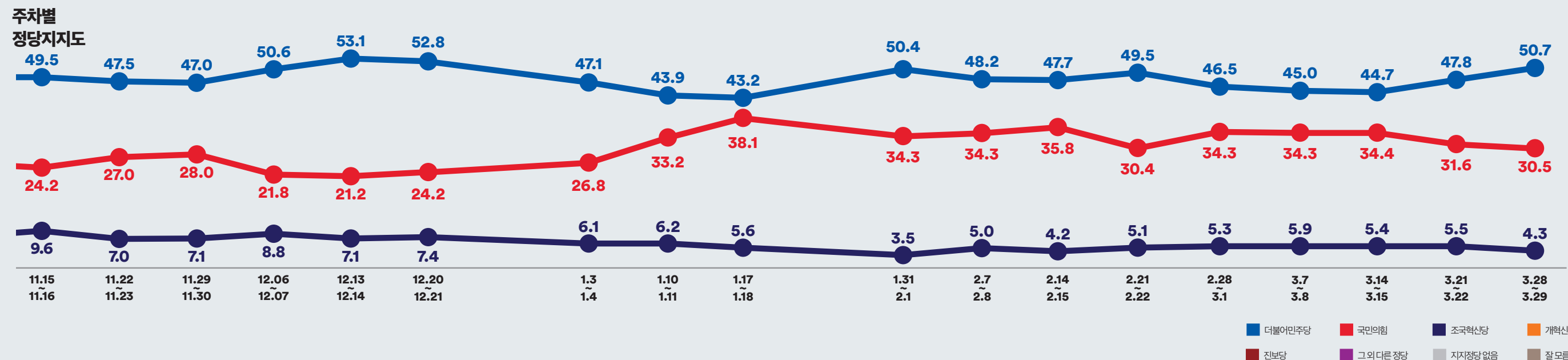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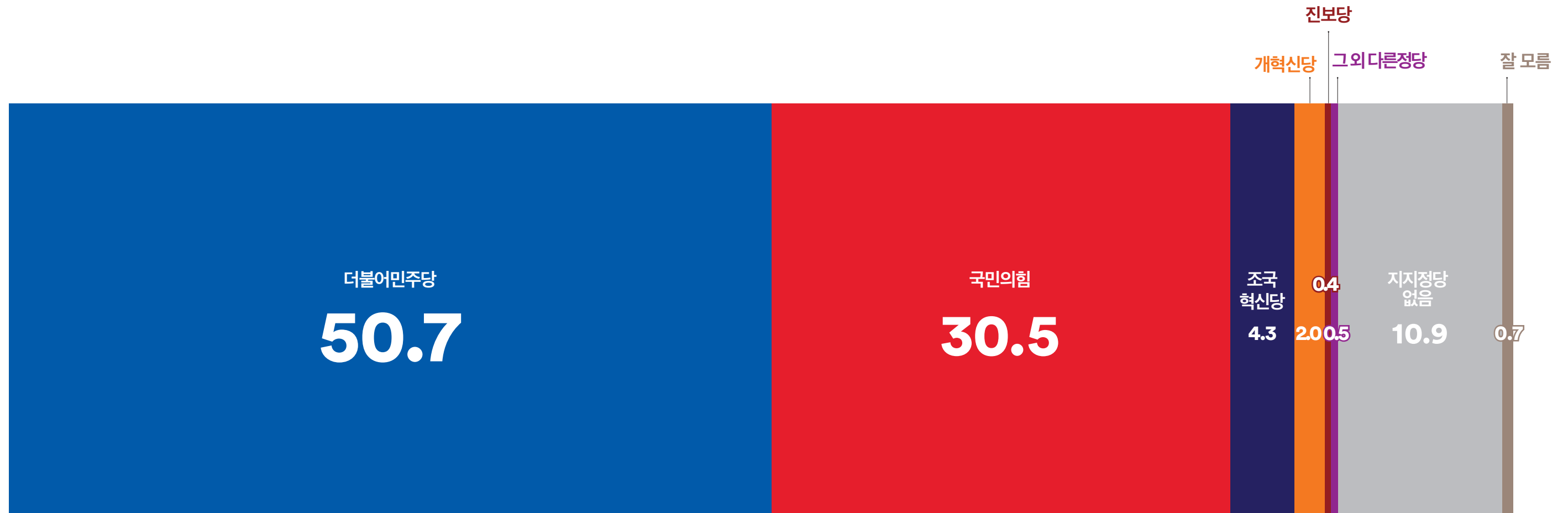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07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9%p 상승, '국민의힘' 1.1%p 하락, '조국혁신당' 1.2%p 하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0.2%p (지난 조사: 16.2%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4.5%p (지난 조사: 21.7%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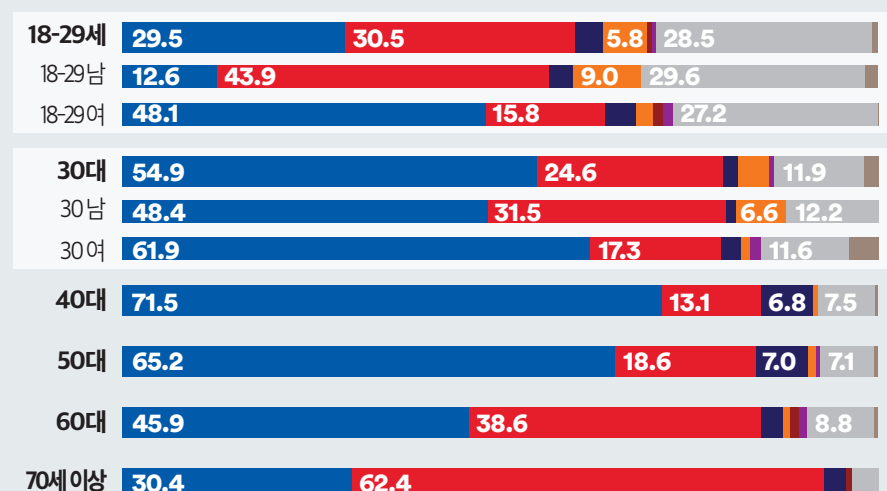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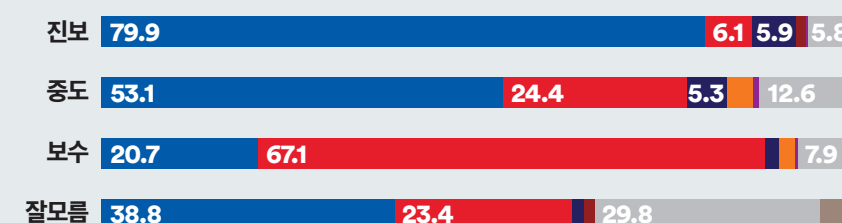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30~60대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3.1%, '국민의힘' 24.4%, '조국혁신당' 5.3%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8.7%p(지난 조사: 2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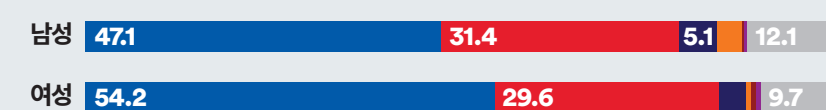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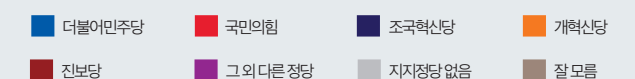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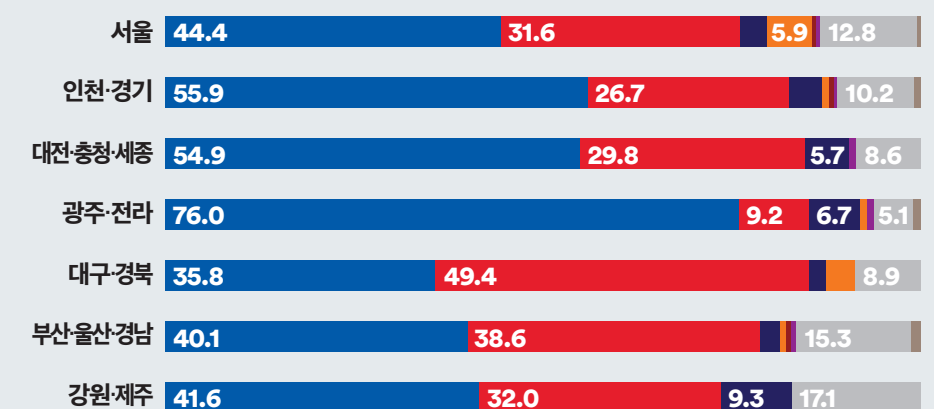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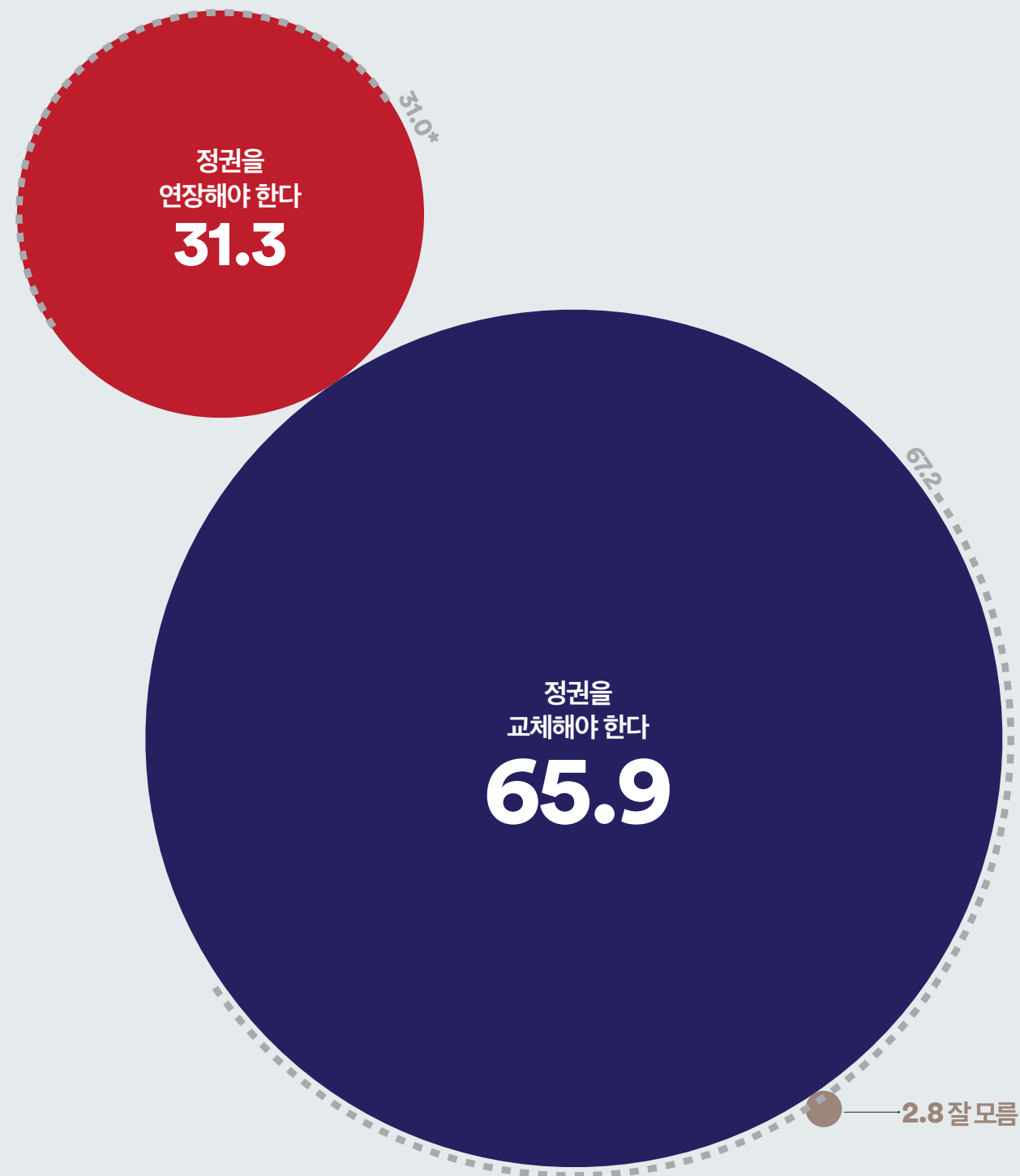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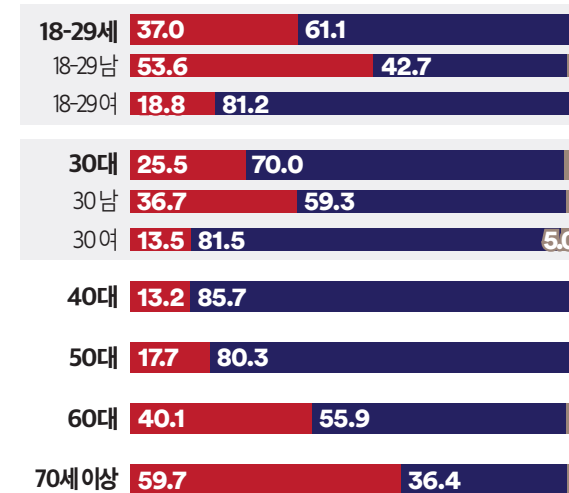


Q. 차기 대선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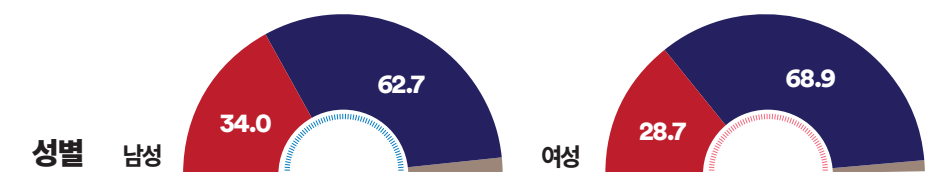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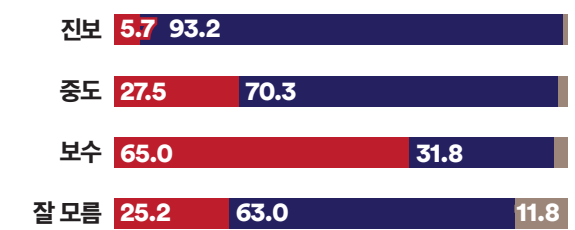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3명 중 2명 정도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4.6%p)
60대 이하 응답층과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TK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했고, 18-29세 남성층에서는 '정권연장' 의견이 오차범위 내 소폭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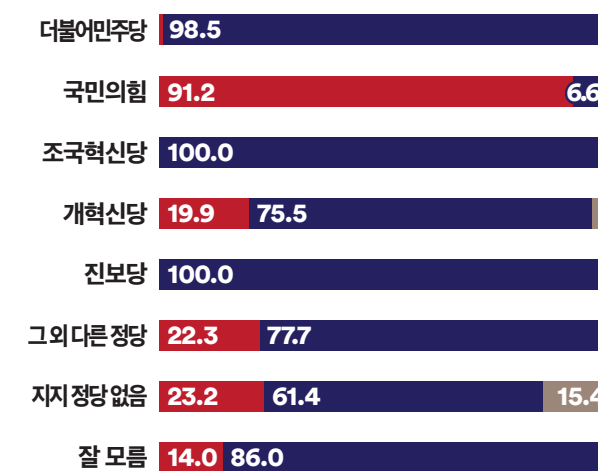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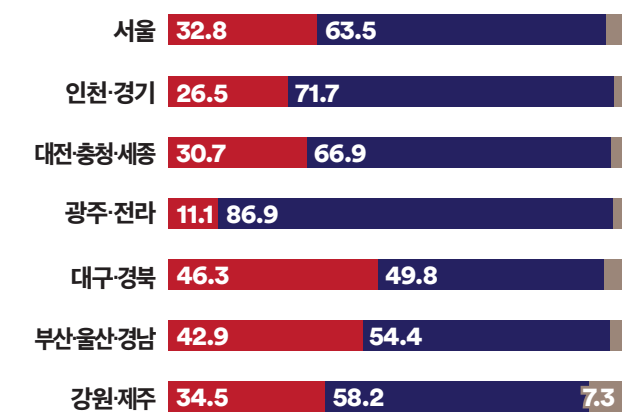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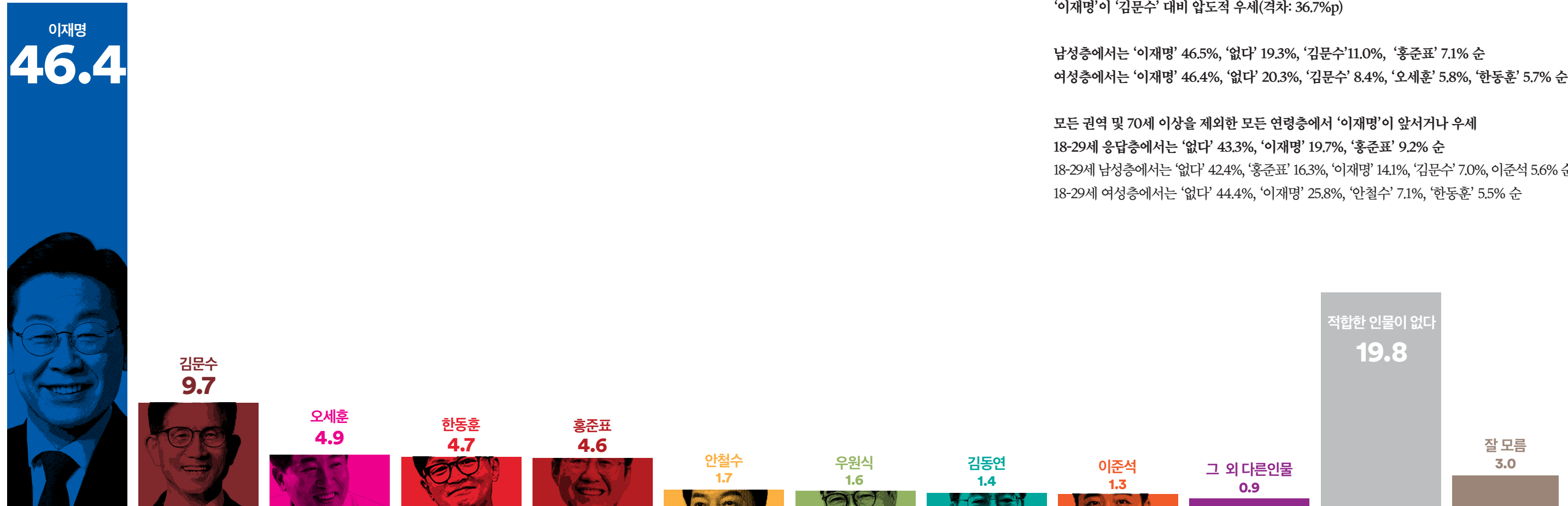


* 107자 정례조사 문항 수치 비교

정권연장 정권교체 잘 모름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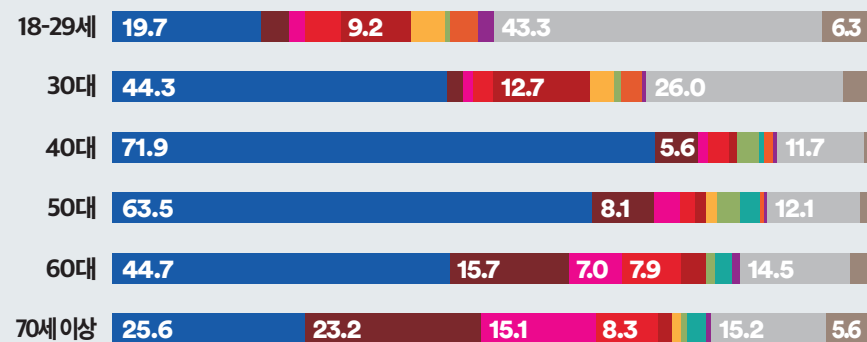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김문수’ 대비 압도적 우세(격차: 36.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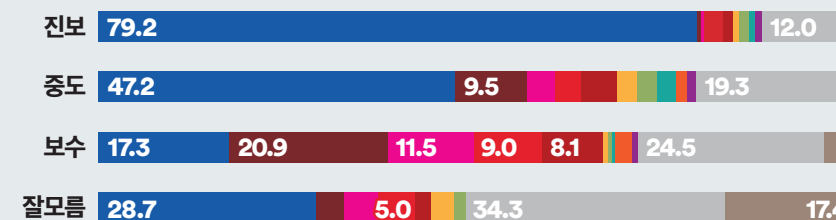
남성층에서는 ‘이재명’ 46.5%, ‘없다’ 19.3%, ‘김문수’ 11.0%, ‘홍준표’ 7.1% 순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6.4%, ‘없다’ 20.3%, ‘김문수’ 8.4%, ‘오세훈’ 5.8%, ‘한동훈’ 5.7% 순

모든 권역 및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43.3%, ‘이재명’ 19.7%, ‘홍준표’ 9.2% 순
18-29세 남성층에서는 ‘없다’ 42.4%, ‘홍준표’ 16.3%, ‘이재명’ 14.1%, ‘김문수’ 7.0%, 이준석 5.6% 순
18-29세 여성층에서는 ‘없다’ 44.4%, ‘이재명’ 25.8%, ‘안철수’ 7.1%, ‘한동훈’ 5.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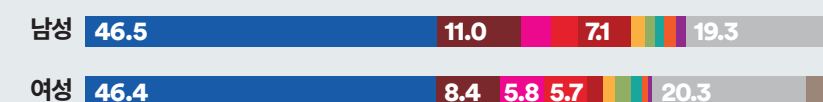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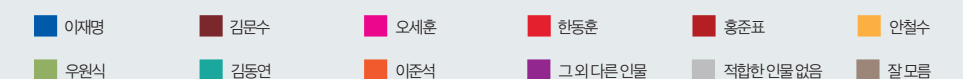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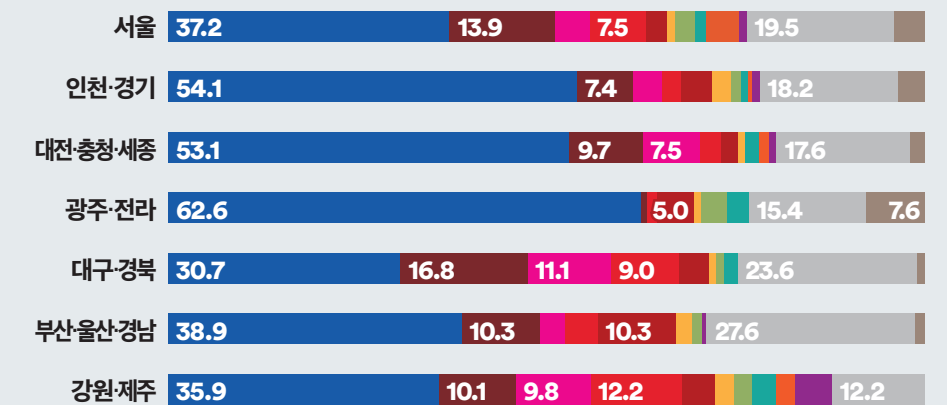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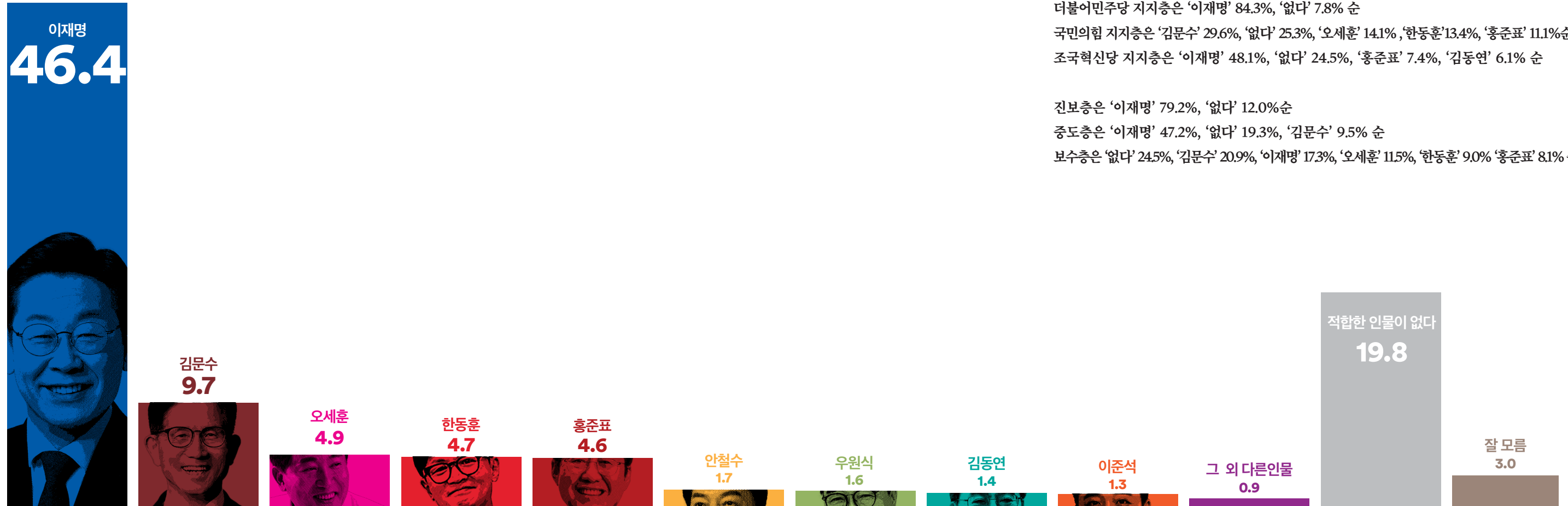
성별



권역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4.3%, ‘없다’ 7.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29.6%, ‘없다’ 25.3%, ‘오세훈’ 14.1%, ‘한동훈’ 13.4%, ‘홍준표’ 11.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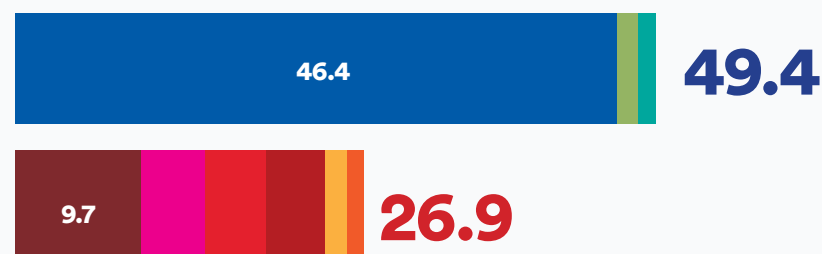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8.1%, ‘없다’ 24.5%, ‘홍준표’ 7.4%, ‘김동연’ 6.1% 순

진보층은 ‘이재명’ 79.2%, ‘없다’ 12.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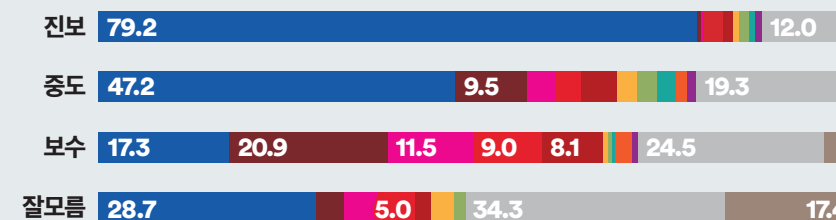
중도층은 ‘이재명’ 47.2%, ‘없다’ 19.3%, ‘김문수’ 9.5% 순

보수층은 ‘없다’ 24.5%, ‘김문수’ 20.9%, ‘이재명’ 17.3%, ‘오세훈’ 11.5%, ‘한동훈’ 9.0%, ‘홍준표’ 8.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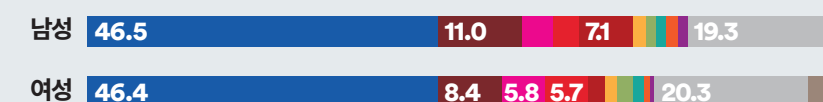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 vs 국민의힘 계열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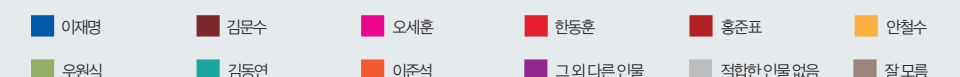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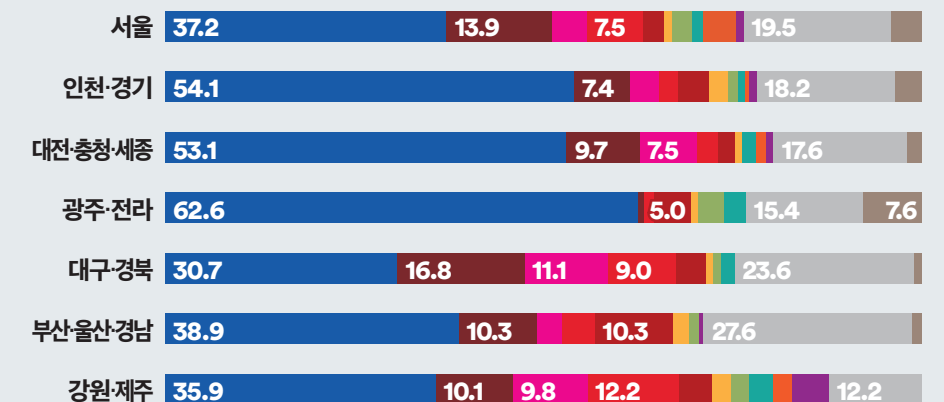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Q.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선고해야 한다

81.0

늦어져도 상관없다

18.0

1.0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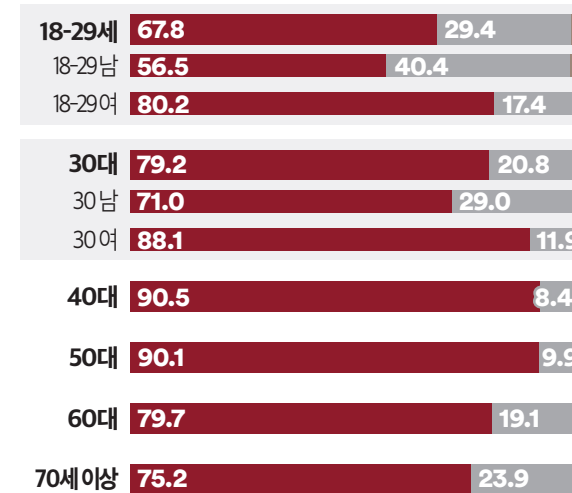
5명 중 4명 이상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시점에 대해 '빨리 선고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63.0%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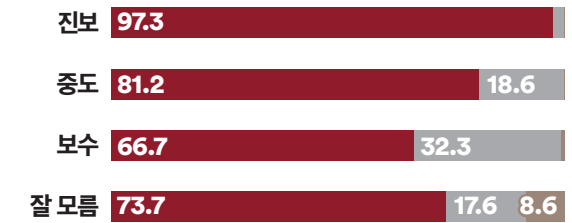
진보층(97.3%), 중도층(81.2%), 무당층(69.6%)은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자영업(84.8%), 화이트칼라(84.9%), 블루칼라(81.5%) 등 경제 활동층에서 압도적인 응답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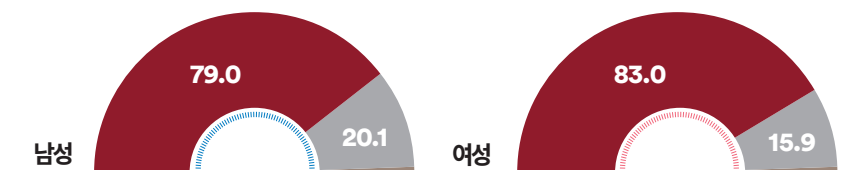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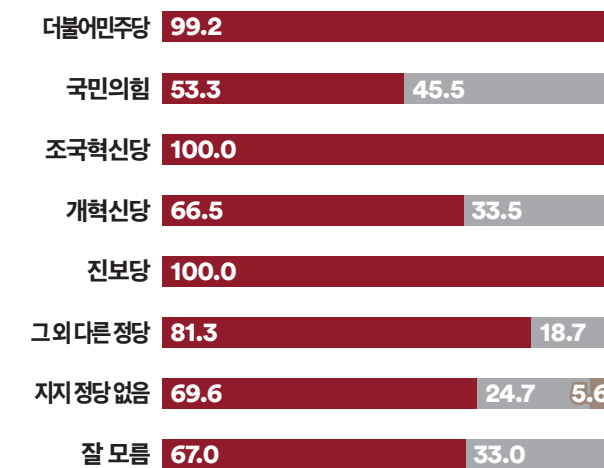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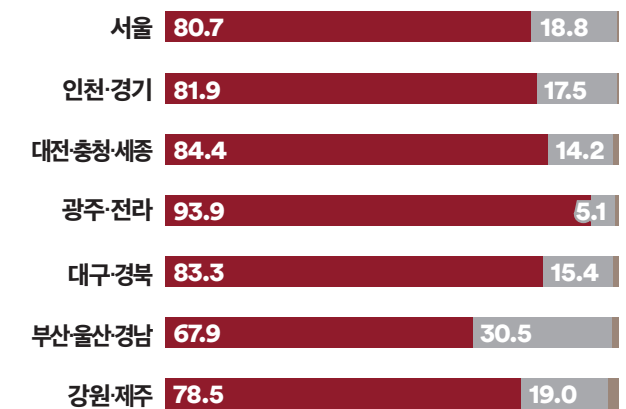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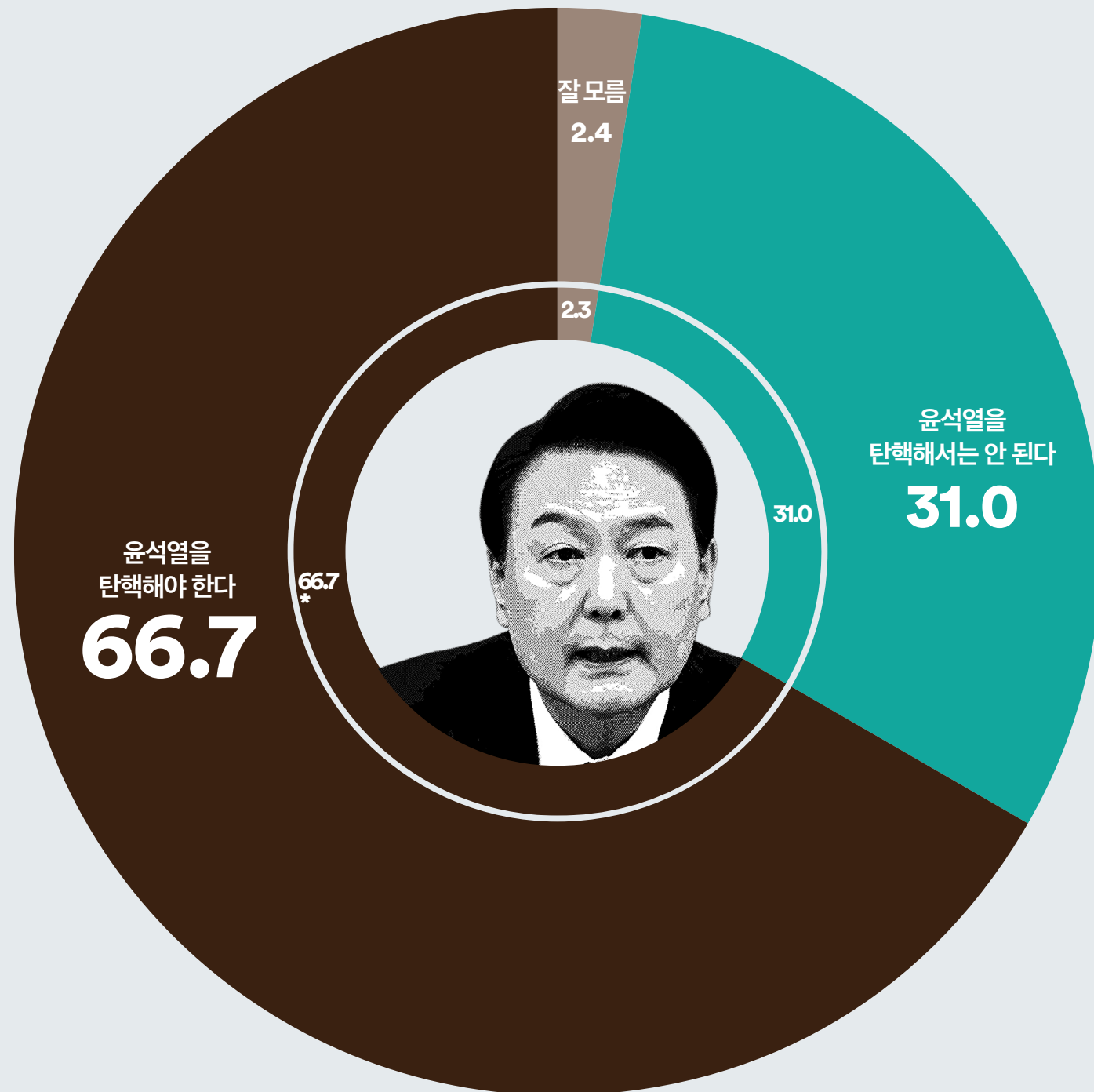
권역



* 107자 정례조사 문항 수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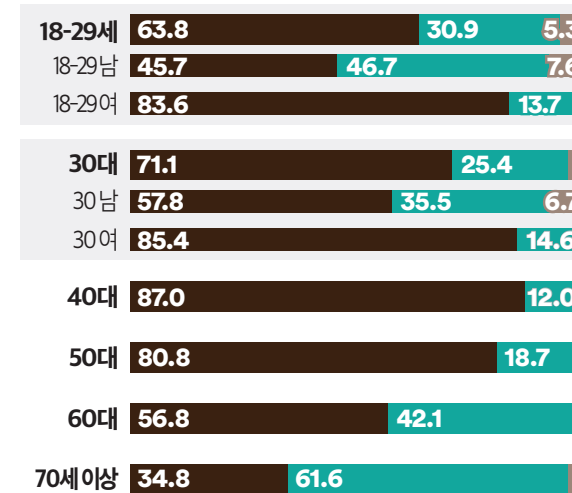
빨리 선고해야 한다 늦어져도 상관없다 잘 모름

Q. 윤석열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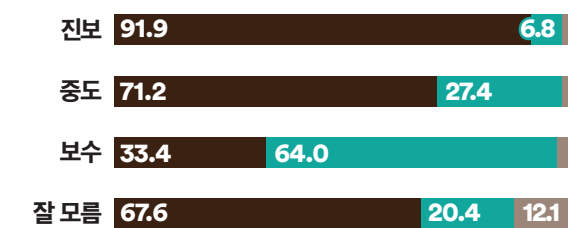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35.7%p)
60대 이하 응답층, 모든 권역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91.9%), 중도층(71.2%), 무당층(61.8%)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우세
18-29세 남성은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나고, 여성층은 '탄핵 찬성' 응답이 압도적 우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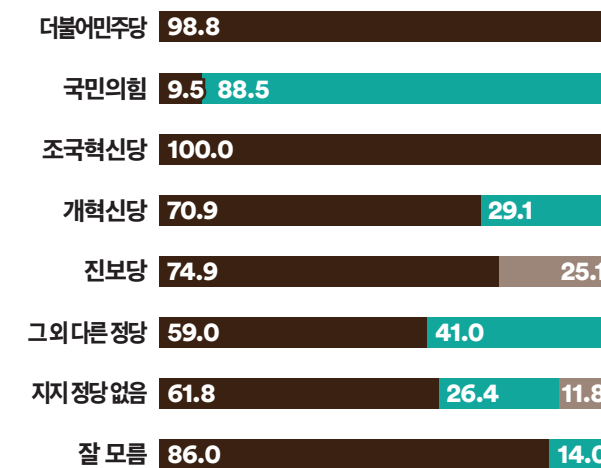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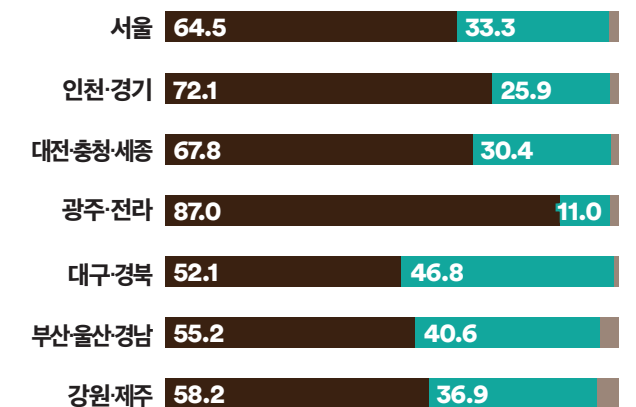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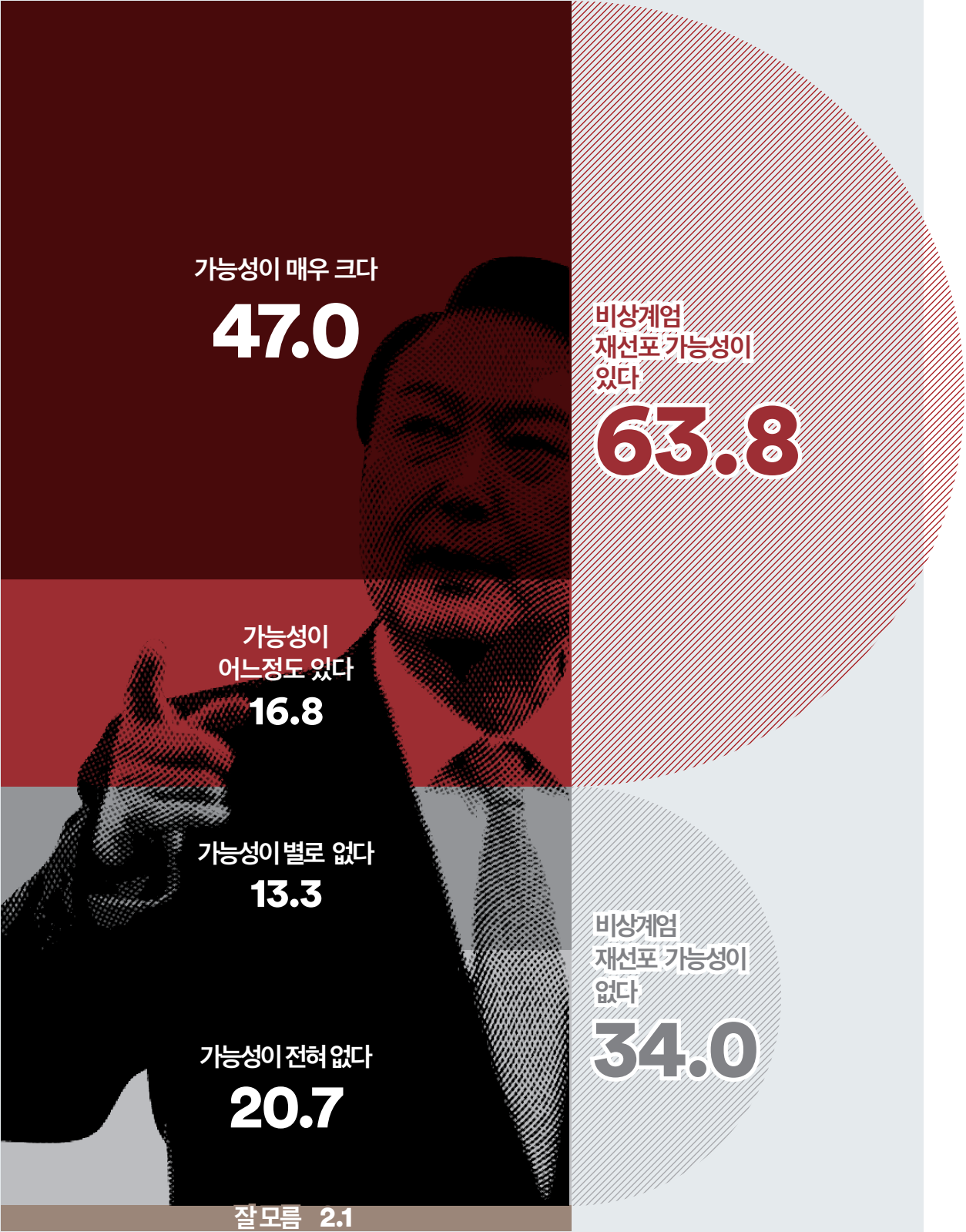
권역



* 107자 정례조사 문항 수치 비교

■ 탄핵해야 한다 ■ 탄핵해서는 안 된다 ■ 잘 모름

Q. 탄핵심판이 기각 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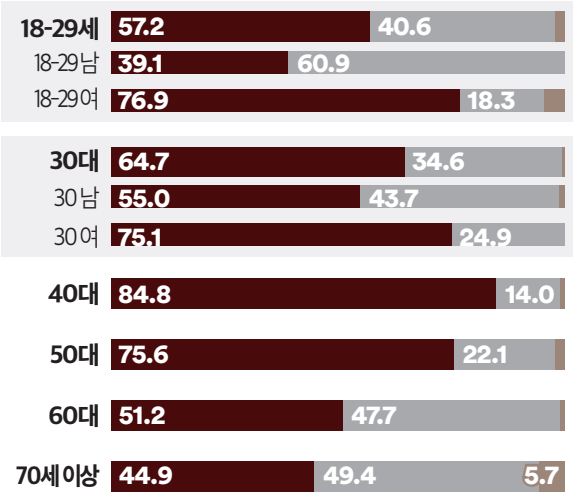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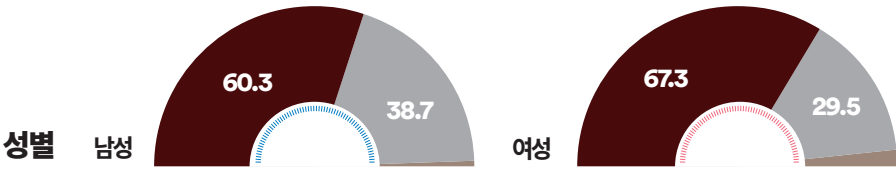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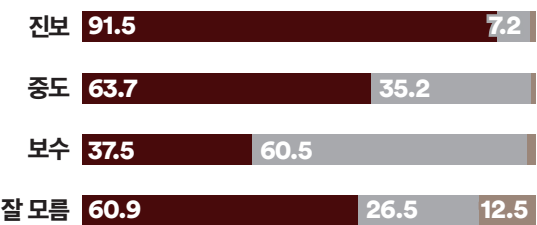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 남·녀 모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0.0%), 보수층(60.5%), 70세 이상 응답층(49.4%)에서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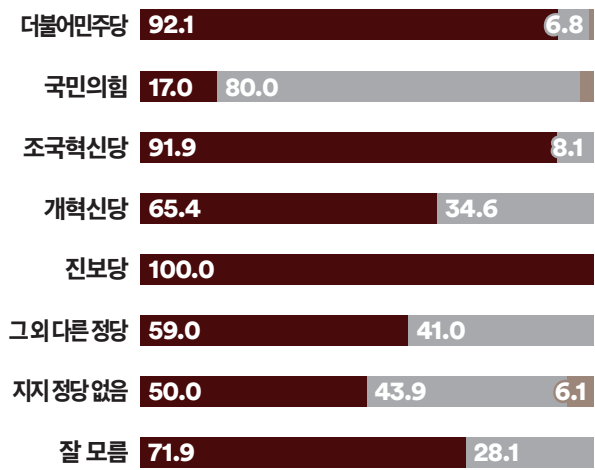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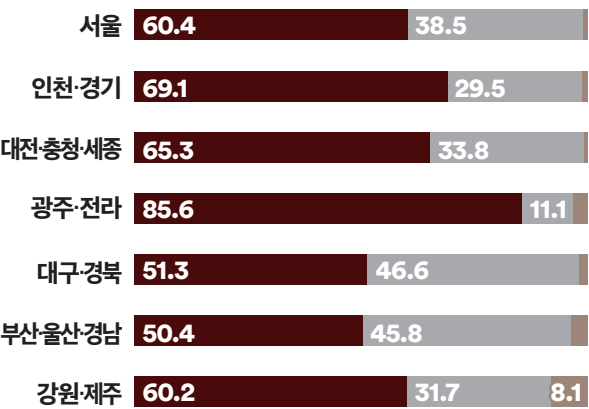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107자 정례조사 문항 수치 비교

■ 가능성이 있다 ■ 가능성이 없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3_09
